



전남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위촉·워크숍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양성평등센터가 '전남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사진)

성별영향평가 위촉대상자인 컨설턴트 31명이 전문성 제고 역량교육을 수료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 수혜를 누리도록 하는 제도다. 워크숍 참여자는 양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전망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원정 센터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했고 김혜진 연구원이 전남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컨설팅, 거버넌스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간재 기자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청렴 워크숍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호)는 지난달 29일 '2024년 영·섬유역본부 업무담당자 청렴 향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워크숍에는 각 부서의 고객 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렴의 의미 변화와 고객이라는 청렴 수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객만족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교육의 시간도 마련됐다.

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은 "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확립과 공정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이 더욱 만족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섬유역본부는 유역 내 청렴 향상 활동 등을 담은 청렴 카드뉴스를 제작해 고객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의 소통도 시작했다. 조진용 기자



조선대병원, 광주권역 재난의료지원 교육

조선대학교병원은 지난 29일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2024년 광주권역 재난의료지원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1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효율적인 재난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응급의료서비스 및 사회 안전망 기능강화에 기여하고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한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의 재난의료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다.

광주시에서 주최하고 조선대병원과 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 주관한 이번 훈련은 조선대병원을 비롯한 3개 기관(광주광역시, 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 광주·전남·전북 보건소) 총 38여 명이 참석해 훈련에 임했다.

주요 훈련내용은 △재난 상황의 초기인지와 상황 전파 △신속 대응반/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구성과 출동기준 △재난 현장 의료지원의 역할과 방법 △훈련 교구를 활용한 가상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노병하 기자



법무보호위원회 전남동부지부협의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한철)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회 전남동부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전남동부지부협의회 박남균 협의회장 및 각 기능별 위원회 회장·임원진과 김한철 전남동부지부장 및 직원 등 총 20명이 참석, 지난해 활동사항 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했다.

전남동부지부협의회는 주요 행사와 법무보호사업 기금 마련, 각 기능별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남균 협의회장은 "더 많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한철 지부장은 "올해도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암생존자 지원 협약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김효진)는 광주·전남권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와 암생존자 건강증진과 사회복귀 지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지난 2018년 암환자를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600명이 참여했으며 2020년 환경부 지정 우수프로그램(제2020-089호 '숲길따라 마음치유')으로 인증받아 지역 대표 치유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협약을 계기로 무등산국립공원 생태복지 수혜자를 암생존자, 노인까지 확대해 특화된 치유프로그램으로 계승·발전시킬 예정이다.

김영배 탐방시설과장은 "암생존자들의 신체적 건강과 마음까지 치유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동신대, 장성 청년들과 창업 활성화 협력

동신대학교와 장성의 청년들이 아열대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와 관광마를 조성에 힘을 모은다. (사진)

동신대 전남형글로컬관광사업단(단장 류갑상 교수)은 장성군공동체활성화협의회상생(대표 이기영)과 '아열대 농산물 활용 청년 취·창업 및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레드향, 망고, 백향과, 파파야 등 아열대 농산물을 활용해 동신대 재학생들의 6차산업 분야 창업을 돕고, 장성군 일대에 청년이 주도하는 아열대 관광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류갑상 단장은 "농촌 지역사회와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학생들의 취·창업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인사

동신대학교 △입학처장 최찬현 △비교과교 육지원센터장 겸 대학공유협력센터장 겸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윤경순



광주 북부경찰, 피싱사기 예방 금융기관 간담회

29일 피싱사기 예방을 위해 '북부경찰-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 북부경찰 형사과는 지난달 29일 피싱사기 예방을 위해 '북부경찰-금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 북부경찰 제공

파혼 발표했던 감스트·뚜밥, 한달 만에 재결합

파혼했던 감스트(34·김인직)와 뚜밥(27·오조은)이 재결합 소식을 전했다.

지난달 31일 감스트는 본인의 유튜브 브 채널에 올린 '감스트GAMST'에 '감스트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재결합 소식을 알렸다. 이 영상은 134만회 조회수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감스트는 뚜밥과 마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는 "제가 방송 12년 차인데, 요새 3개월 동안 방송 땀세게 했다. (그동안) 뚜밥에게 신경을 거의 못 쓰고 (뚜밥이) 데이트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방송만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보니 흥분해서 '그걸 가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뚜밥을 쫓아냈다"며 "이후 찾으러 가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심각성을 모르고 뚜밥이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감스트는 "한 달 동안 미안하다고 편지도 쓰고 했다. 봐 달라고 찾아가었다. 연애 초반에는 잘했는데 동거하고 나서 (내가) 안일하게 행동했다"며 파혼 이후 상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에 파혼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더라. 제일 중요한 시



감스트 뚜밥

기에 저만 생각한 것 같다"며 다시 한번 경솔했던 태도를 인정했다.

이번 재결합을 통해 자신이 반드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감스트는 "어느 순간 (뚜밥이) 엄마처럼 다 해주길 바랐던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소중한 사람한테 더 신경 쓰고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잘 만나보려고 한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며 "잘못한 걸 알았으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잘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로 격정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스트와 뚜밥은 2022년부터 공개 연애를 시작해 오는 6월 결혼을 예정 중이던 커플로, 지난달 6일 파혼을 발표해 많은 팬에게 충격을 안겼다.

해당 영상에 누리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단단한 사랑이 되길 바란다'며 그들의 재결합을 응원했다. 뉴시스

라이언 고슬링, 액션·코믹·로맨스... '스턴트맨' 5월 개봉

할리우드 배우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한 영화 '스턴트맨'이 5월 1일 개봉한다. 배급사 유니버설 픽처스는 1일 이렇게 밝히고 포스터를 공개했다. (사진)

이 영화는 사람도 구하고, 영화도 구하려다 위기에 빠진 스톤트맨 폴트의 고군분투를 담았다. 고슬링은 연인에게 잠수 이별을 고한 스톤트맨 폴트 역을, 에밀리 블런트가 잠수 이별을 당한 영화감독 조디 역을 맡았다.

'데드풀' '분노의 질주: 흡스&쇼' 연출을 맡아 유명세를 얻은 데이빗 레이치 감독은 이 영화에서 폴트와 조디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재회한다는 상황 속, 커플의 리얼한 케미로 코미디와 로맨스의 조화를 담아낸다. 여기에 사라진 주연 배우를 찾으러 나선 폴트가 영화 촬영장 안팎을 오가며 다채로운



액션을 펼친다.

뉴시스